

- **주요 뉴스:** IMF,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
 - IMF 금융안정보고서, 주식 및 주택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물 출회 가능성
 - 연준 주요 인사, 11월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을 시사
 - 미국 9월 뉴욕 연은 설문조사,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전망 등이 영향
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하락[-3bp]

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실적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.1% 하락
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11월 테이퍼링 발표 전망 등으로 1년래 최고 수준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3% 하락
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 둔화 우려 등이 배경
 독일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등으로 5월 이후 최고치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8.8원, -0.9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12일	10/11일	전일대비			10/12일	10/1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50.7	4,361.2	-0.2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8%	휴장	-3bp
	유럽	457.21	457.53	-0.07%		독일	-0.09%	-0.12%	3bp
	중국	3,546.9	3,591.7	-1.25%	CDS 5y	한국	22bp	22bp	0bp
	일본	28,231	28,498	-0.94%		중국	56bp	60bp	-4bp
	한국	2,916.4	휴장	-1.35%	위험 지표	EMBI+	-	374	-
환율	달러지수	94.51	94.32	0.21%		VIX	19.85	20.00	-0.75%
	유로화	1.1530	1.1552	-0.19%		WTI유	80.64	80.52	0.15%
	엔화	113.61	113.31	-0.26%	원자재	구리	432.0	436.7	-1.06%
	위안화	6.4489	6.4506	0.03%		금	1,760.2	1,754.2	0.34%
	원화	1,198.8	휴장	-0.3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IMF,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.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

-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(6.0%) 대비 낮춘 5.9%로 제시. 선진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(5.6%→5.2%), 신흥국은 상향(6.3%→6.4%). 국가별로는 미국(7.0%→6.0%), 독일(3.6%→3.2%), 일본(2.8%→2.4%), 중국(8.1%→8.0%) 모두 하향
- 경기회복 저해 요인으로 공급 차질, 인플레이션 등을 지목. 2022년 전망치는 4.9%로 유지.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 복귀가 예상되나, 코로나 19 여파 장기화 시 인플레이션 충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
-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임금 및 근원 물가 상승 등의 2차 영향이 발생하느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. 한편 최근 경제 상황은 수요가 양호한 상태이기에,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 금융안정보고서, 주식 및 주택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물 출회 가능성

-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당국이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축소할 경우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. 또한 이로 인해 무질서한 레버리지 축소가 발생하면 신용의 급격한 위축으로 경기회복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

■ 연준 주요 인사, 11월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을 시사

- 클라리다 부의장은 '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진전'이라는 테이퍼링 시행 기준에서 고용부문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언급. 테이퍼링은 내년 중반 종료를 지지한다고 부연. 경제가 1970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
-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도 11월 테이퍼링 시행 및 내년 봄 종료를 지지한다고 발언. 이를 통해 예상보다 빨리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첨언
-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. 그러나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존의 금리 관련 정책을 재고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 피력

■ 미국 8월 JOLTS 구인광고건수, 전월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

- 같은 달 구인광고건수는 1040만건으로 전월(1110만건) 대비 감소. 반면 자발적 실업은 사상 최고 수준인 24.2만건 늘어나 430만건. 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는 인력 부족 상황이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

■ 미국 9월 뉴욕 연은 설문조사,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

- 응답자들은 1년 후 인플레이션을 평균 5.3%로 예상.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. 다만 1년 후 주택가격은 5.9%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, 8월(9.2%) 대비 하락

■ 미국 재무부, 여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디지털세 철폐에 근접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해당 사항과 관련된 세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. 이번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, 글로벌 법인세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의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PEPP 종료 후 통상적 자산매입(APP)을 활용할 때 매입 규모 혹은 시기 등을 좀 더 자유롭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. 인플레이션이 2023년 목표치를 하회할 수 있기에,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

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석탄 화력발전의 전력 가격을 완전 자유화

-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제시.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전력의 비중은 70%.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석탄 생산 촉진과 공장의 전력 수요 조절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1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: 99.1, 8월(100.1), 예상치(-)
- 독일 10월 ZEW 경기기대지수(만건): 22.3, 9월(26.5), 예상치(24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13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 강연, FOMC 의사록, 미국 9월 소비자물가
- 유로존 8월 산업생산, 독일 9월 소비자물가, 중국 9월 수입 및 수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전세계 코로나 19 회복, 희망과 두려움 혼재 속 정책 변화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Hopes and fears for the global Covid-19 recovery)

- 세계경제는 효과적인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으로 코로나 19충격으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. IMF의 WEO, GFSR 보고서는 전세계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성공에 의한 코로나 19 통제가능 시점을 내년 말로 가정
- 하지만, 저소득 국가와 젊은층,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. 아울러 공급차질, 스테그플레이션, 긴축정책선회, 자산가격 급등과 금융부문의 과도한 팽창, 변이 바이러스 우려, 기후문제, 사이버공격, 미·중 갈등 등 문제들이 산적
- 이에 대한 해법으로 IMF는 빠르고 광범위한 백신접종과 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권고. FT의 마틴 울프는 고소득 국가들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구사하되,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부양책 축소 방향으로 정책믹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

■ 중국 은행권에 대한 정부 규제,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- WSJ

(For China's Banks, Corruption Is Only Half the Problem)

- 헝다그룹 경영위기 등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불분명. 그간 은행권은 국영기업 외 민간 차입자에게도 의심스러운 대출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다수
- 중국 대형은행은 대마불사의 인식과 예금금리 상한 제한 등으로 수혜. 이들 은행은 이를 통해 파산 가능성이 높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업에게 대출을 확대. 이에 중국 은행권은 부실대출 고리에 대한,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

■ 인플레이션 압력의 본격화, 코로나 19보다 시장에 더 부담 - 블룸버그

(Inflation Clarity Doesn't Mean the News Is Good)

■ 중국대만 간 긴장 고조, 군사 분쟁 심화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 - Financial Times

(The acute dangers of a conflict over Taiwan)

■ 영란은행, 너무 이른 긴축 행보는 자국 경제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 - 블룸버그

(The Bank of England Risks Hiking Too Far Ahead of the Fed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